



지리산과 광한루에서 보내는 가장 합리적인 피서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인 6월이다. 이제 곧 여름이라는 의미이다. 5월인데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어찌하면 올 여름도 지난해 못지않은 무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라고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곳곳에 바다도 있고, 강도 있었지만, 여름이면 그래도 가장 최적의 장소는 계곡이다. 바로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으로 천혜의 자연 속에 울창한 녹음을 품은 계곡, 특히, 600년을 맞은 광한루를 기념하기 위해 남원시가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를 준비한 우리나라 최고의 휴양도시가 기다리는 남원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지?

고
래
도
바
다
보
단
계
곡
이
지

▲한 여름을 잊게 하는 에어컨 같은 고갯마루 정령치

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 중 하나인 정령치는 해발 1172m의 고개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고개를 오르고 나면 서늘한 바람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준다.

이곳은 예전에는 자가용 등이 없으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 올봄부터 남원시에서 정령치 순환버스를 개통하면서 대중교통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남원역과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고기리, 정령치 휴게소, 반선, 산내면 소재지, 인월면 소재지, 운봉읍 소재지를 거쳐 남원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1인당 1000원으로 하루 2번 운행하고 첫 번째 운행은 오전 8시 25분에 남원역을 출발해 정령치 휴게소에서는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머물고, 남원역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다.

두 번째 운행은 오후 2시 30분에 남원역을 출발해 3시 45분부터 4시 5분까지 정령치 휴게소에 머물고 남원역에는 오후 5시 35분에 도착함으로 오전에 정령치로 출발한 관광객들이 이곳 주변을 둘러보고 오후에 남원으로 돌아오기에 좋은 시간이다.

▲남원 8경의 하나인 구룡폭포와 뱀사골

정령치 길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남원 8경 중 제 1경인 구룡폭포와 구룡 계곡일 것이다.

아름다운 용이 노닐다 승천했다는 속설이 사실처럼 느껴질 만큼 구불구불 아슬아슬하게 연결되며 절경을 연출하는 구룡계곡은 여름의 더위를 씻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가 될 것이다.

또한 밤이 되면 볼 수 있는 정령치의 여름 밤하늘은 영화에서나 볼법한 멋진 장면을 보여준다.

별빛하나 없는 밤하늘이 보여주는 멋진 별빛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



뱀사골 계곡



구룡폭포



광한루 야경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 타고

정령치에서 시원한 바람 쐬러

구룡폭포·뱀사골에서 즐거운 캠핑

광한루에서 신나는 공연도 준비돼

남원에서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광한루를 연결하는 오작교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견우, 직녀가 만나는 칠석(七夕, 양력 8월 7일)이 포함된 주말 광한루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을 포함한 행사가 열린다.

지난 4월 11일에는 광한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하는 현관 제막식이 있었으며, 춘향제 기간 광한루를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오는 8월 2일에는 남원시민과 남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광한루 600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열어 모두 함께 600년이 된 광한루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놀이를 비롯한 탁본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낮 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멋진 야경을 자랑하는 광한루원에서는 시립국악단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8시에 야간공연으로 멋진 우리전통 소리와 춤을 선보이고, 광한루원 곳곳에서는 국악 버스킹(거리공연)도 열린다.

또한 10월까지의 이렇듯 멋진 야간 공연을 무료 관람이 가능하게 하고자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무료 야간개장 시간을 운영한다.

특히 남원시는 광한루가 60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무료개방일도 확대한다.

추석은 물론, 6월 7일 단오와 광한루 기념주간인 8월 7일 칠석, 한글날인 10월 9일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광한루원에서 지적인 남원 공설시장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월매 야시장'을 운영해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으니, 필수 관람코스로 넣어두도록 하자.

▲몸과 마음 모두 시원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 계곡의 물줄기와 우기진 수목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광한루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같이 대한민국 어딜 가도 2019년 여름을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올 여름 피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남원을 선택해보자.

평생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당신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특히, 가족과 함께라면 보다 알차고 의미있는 휴식이자 힐링이 되어 행복이 넘쳐나는 화목한 가정을 그려 보자. /남원=김기두 기자

하면 응당 떠오르는 피서지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캠핑장도 준비되어 있어 연인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면 이곳에서 1박을 보내는 것도 새로운 여름추억이 될 것이다.

▲600년을 맞이한 광한루의 다채로운 행사
지리산에서 1박을 보내고 남원으로 내려오면 600년을 맞은 광한루가 여행객들을 기다린다. 1419년 조선조 명재상 황희 정승이 남원에 있을 적에 건축한 광한루는 2019년인 올해 600년을 맞이했다.

600년을 맞아 올해를 광한루 방문의 해로 정한